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송경미,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Happiness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yeng-my Song, Sung-je Cho*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U시 N구에 소재한 상담센터의 학교부적응 청소년 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검증, 빈도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통한 3단계 매개효과 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 및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교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원가족 자아분화의 개선을 위해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담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퇴행 및 가족투사에 대한 다양한 개선전략의 마련 및 정서지능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과 활성화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influence of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happiness of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Subjects included 116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from counseling centers in U city. Using R program for statistical analysis metho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hree-step mediation regression analysis, and the Sobel test were conducted. Results showed that both family regression and family projection of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chool happiness. Secondly,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the family-of-origin family self-differentiation on school happiness.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the higher the sense of school happiness. Taking these results together, th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were found to be potential factors that can increase school happi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sense of school happiness,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levels of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by devising and utilizing systematic counseling services for family regression and family projection, as well as educational programs for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 School Happiness,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Emotional Intelligence, School-Maladjusted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May 31,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Revised July 9,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거쳐 원가족에서 자아분화 및 원만한 성인으로의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반면 일부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정상적인 성장과정에서 궤도를 벗어나 가족 간의 갈등, 학교환경과 교사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속에서 폭력, 범죄,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행동을 하는 위기청소년이 된다. 위기 청소년이란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이다[1].

한편 위기청소년이 되는 요인은 가정적 요인과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되며[2], 이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자녀들이 겪는 정서적인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경험은 날로 심각해지고, 학교부적응이라는 사회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3].

학교부적응이란 ‘학교 내에서의 교사문제, 친구문제, 잦은 조퇴, 등교거부, 불안정한 정서, 방관적인 수업태도, 낮은 학업성취도 등의 행동특성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정의되며[4],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갈등이나 부정적 또래관계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학교부적응 청소년’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은 개인, 가정, 학교의 상호복합적인 관계성에 의해 발생되어진다[5]. 따라서 학교라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적응은 학생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며 학교적응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학교행복감이 높다고 하였다[6].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 환경적 요인 중에서 학교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학교행복감은 학교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는 심리적 만족감과 그 결과 이르게 되는 정서적 안녕의 상태를 의미하며[7]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이란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학교적응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행복감은 교사-학생 관계, 수업참여, 학업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행복감은 수업에 대한 참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인되었다[8, 9]. 또한 행복감은 긍정적인 행동과 심리건강, 대인관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10]. 이러한 결과는 학교행복감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바람직한 학교생활과 인격발달을 위해 제한적 관계에서 벗어나 친밀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11, 12]. 특히 청소년의 부모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는 분리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3]. 또한 부모-자녀 간 높은 수준의 분화는 가족관계와 그 외의 관계에서도 더 잘 적응하고 대인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적 기술과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 모의 자아분화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녀의 자아분화는 아동의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주며 모-자녀관계를 통해서도 또래관계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이러한 결과는 가족분화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의 자아분화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또 하나의 변인은 정서지능이다. 정서지능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 정서 및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자신의 느낌을 자신의 내면과 상황적 요구에 맞도록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으로써[17], 혼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정서지능이 청소년들의 중요한 타인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사고와 판단에서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데 요구되는 자아분화를 촉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18]. 정서기능 중 특히 원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행복감에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또래관계 및 학습 성취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정서조절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돕고, 정서를 잘 활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이다[20]. 정서지능과 학교행복감의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서지능은 부모-성년 소통과 심리적 행복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중재적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또한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복감의 가장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22]. 또한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음이 보고되었다[23].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할 때, 정서지능이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측면에서 학교행복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요소들을 줄여가고 학교행복감의 향상을 위해 정서지능을 연구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지능이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 정서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이 행복한 적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 사이에서 정서지능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의 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

족 자아분화와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모형은 Fig.1과 같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경찰청 여성청소년계의 위탁지정 상담센터(U시 N구에 소재한 K, Y, W)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이다. 설문기간은 2020년 10월17일부터 2020년 11월25일까지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상담센터의 상담사를 통해 사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의 목적, 비밀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설문링크를 통해 응답하도록 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조사 자료는 총 134부 중 누락되거나 일관된 응답표시 등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18부를 제외한 총 116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내적일관성 분석을 위한 신뢰도검증, 측정변수들의 분포와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인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 다중회귀분석과 Sobel 검정을 실시하였다.

2.3 측정도구

본 연구는 학교행복감, 원가족 자아분화, 정서지능의 도구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2.3.1 학교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7]이 개발한 학교행복의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Cho와 Jung[9]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Li[24]의 연구에서 수정·보완하고 재구성하여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4문항, 환경 만족 4문항, 학습활동 즐거움 4문항, 부정문항인 심리적 안정감 4문항으로 총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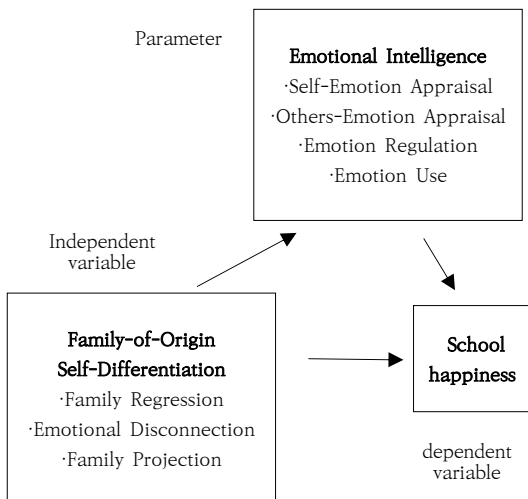


Fig. 1. Model of research

문지의 응답 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자기보고용 리커트 형식에 의한 5단계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i[24]의 연구에서는 학교행복감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6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2로써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2.3.2 원가족 자아분화

본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는 Bowen[25]의 자아분화 척도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제작한 Je[26]의 자아분화 척도를 Park[27]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투사 7문항, 정서적 단절 8문항, 가족퇴행 7문항의 세 개의 하위요인과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27]. 가족퇴행은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폭력, 책임회피, 가족의 동질화를 추구하는 등 비합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28]. 가족 투사는 '가족치료 용어로서 부모가 자신의 갈등의 근원을 가족 구성원에게 돌리는 행위'를 가리킨다[27]. 정서적 단절은 '태어난 원가족에게서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부모와 격리, 도피, 거부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극심한 정서 분리'를 의미한다[27].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의 문항 중 * 표시를 한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즉 1점은 5점으로, 2점은 4점으로, 4점은 2점으로 5점은 1점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들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으나 역채점을 했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 자아분화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7]의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 요인 각각 .832, .875, .8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원가족 자아분화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하위요인별로 가족퇴행 .95, 정서적 단절 .77, 가족투사 .84로써 전체 .95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ronbach's α 값이 모두 .6 이상을 만족하므로 측정 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2.3.3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Wong과 Law[29]가 개발한 WLEIS(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Han과 Yoo[30]가 변안한 척도를 Jang[31]의 연구에서 적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 도구는 자기정서 인식, 타인정서 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의 4개 하위요인, 총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양

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리커트식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고 판단한다. Jang[31]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3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각 측정도구의 내용을 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figuration contents of measurement tool

Factor			Number of questions	Question Number	Cronbach's α	
Independent variable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Family Regression	7	13*,14*, 15*, 16*,17*, 18*, 19*	.95	.95
		Emotional Disconnection	8	7*, 8*, 9*, 10*, 11*, 12, 20, 22	.77	
		Family Projection	7	1*, 2*, 3*, 4*, 5*, 6*, 21*	.84	
Dependent variable	School happiness		16	13*,14*,15*, 16*	.92	
Parameter	Emotional Intelligence		16		.93	
Total number of questions			54			

* a reverse scoring question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조사대상자는 총116명으로 성별은 남자 35명(30.2 %), 여자 81명(69.8 %)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력의 경우 중학교 재학 26명(22.4 %), 중졸 2명(1.7 %), 고등학교 재학 87명(75.0 %), 고등학교 자퇴 1명(0.9 %)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거의 없다'가 5명(4.3 %), '10분 정도' 15명(12.9 %), '30분 정도' 33명(28.5 %), '1시간 이상' 63명(54.3 %)으로 파악되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가 17명(14.7 %), '1~2회 생각해 보았다'가 76명(65.5 %),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가 23명(19.8 %)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은 Y-상담센터 51명(44.0 %), K-센터 47명(40.5 %), W-센터 18명(15.5 %)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Frequency (N)	Percentage (%)
Gender	① Male	35	30.2
	② Female	81	69.8
Current education	① Enrolled in middle school attendance	26	22.4
	② Graduated from middle school	2	1.7
	③ Enrolled in high school	87	75.0
	④ Withdrawn from high school	1	0.9
Averag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① Almost none	5	4.3
	② About 10 minutes a day	15	12.9
	③ About 30 minutes a day	33	28.5
	④ More than 1 hour a day	63	54.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① I didn't think about it.	17	14.7
	②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76	65.5
	③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23	19.8
Counseling Center	①Y-Center	51	44.0
	②K-Center	47	40.5
	③W-Center	18	15.5
Total		116	100.0

3.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주요 측정변인 간의 관련성과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살펴본 결과, 총 표본 크기는 116명이었으며, 원가족 자아분화는 5점 총점기준에서 평균 3.38($SD=0.80$), 하위요인별 평균은 가족퇴행 3.45($SD=0.97$), 가족투사 3.36($SD=0.85$), 정서적 단절 3.34($SD=0.69$)순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행복감과 정서지능은 각각 평균 3.26($SD=0.60$), 3.52($SD=0.58$)로 확인되었다. 또한 왜도의 절댓값 3이하, 첨도의 절댓값 10이하로 Kline[32]가 제시한 기준치에 적합하므로 정규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Kline[32]는 왜도의 기준을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 변인들의 왜도 절댓값이 3이하, 첨도 절댓값이 10이하이므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가족 자아분화, 학교행복감,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p<.05$, $p<.01$, $p<0.001$)을 보여주었으나 정서지능의 자기정서 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은 학교행복감의 심리적 안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원가족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N=116)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School happiness				㉢ Emotional Intelligence			
		㉠Family Regression	㉡Emotional Disconnection	㉢Family Projection	㉣Self-efficacy	㉤Environmental satisfaction	㉥Learning Happiness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motion Appraisal	㉨Others-Emotion Appraisal	㉩Emotion Regulation	㉪Emotion Use
A	①	1										
	②	0.93***	1									
	③	0.87***	0.86***	1								
	④	0.68***	0.67***	0.54***	1							
B	⑤	0.66***	0.66***	0.53***	0.83***	1						
	⑥	0.64***	0.66***	0.48***	0.84***	0.81***	1					
	⑦	0.24**	0.19*	0.21*	0.23*	0.19*	0.21*	1				
	⑧	0.38***	0.42***	0.27**	0.60***	0.59***	0.59***	0.02	1			
C	⑨	0.58***	0.58***	0.43***	0.77***	0.76***	0.71***	0.24*	0.66***	1		
	⑩	0.58***	0.58***	0.43***	0.74***	0.73***	0.72***	0.16	0.75***	0.77***	1	
	⑪	0.55***	0.55***	0.40***	0.78***	0.73***	0.77***	0.16	0.70***	0.81***	0.83***	1
Average	3.45		3.34	3.36	㉡ 3.26				㉢ 3.52			
	Standard deviation		0.97	0.69	0.85	㉡ 0.60				㉢ 0.58		
	Skewness		-1.21	-1.32	-0.95	㉡ -2.27				㉢ -2.05		
	Kurtosis		3.27	3.83	2.73	㉡ 8.41				㉢ 7.59		
			㉠ 3.41									

* $p<.05$, ** $p<.01$, *** $p<.001$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와 학교행복감의 자기효능감, 환경만족, 학습활동 즐거움은 학교행복감의 심리적 안정감과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정서지능의 자기정서 인식은 원가족 자아분화의 가족투사와 낮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3.3 대상자의 학교행복감 관련 변인

대상자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는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정서적 단절, 가족투사를 포함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가족퇴행($\beta=.63$, $t=3.23$, $p<.01$), 가족투사($\beta=.31$, $t=2.23$, $p<.05$)였으며, 이들 변인들은 학교행복감에 대해 51.0%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학교행복감 관련 변인은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chool happiness (N=116)

Variable	β	t	P
constant	0.00	7.11	<.001***
Family Regression	0.63	3.23	<.01**
Emotional Disconnection	0.37	1.97	>.05
Family Projection	0.31	2.23	<.05*

Adj. $R^2=0.51$, $F=40.54$, $P<.001$

* $p<.05$, ** $p<.01$, *** $p<.001$

3.4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가족 자아분화, 정서지능을 살펴보았다.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은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범주형 변수로써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과 현재 학력은 모든 경우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매개분석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인인 '부모와의 하루 평균 대화시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교육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이 통제되었다. 매개효과와 검증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분화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를 검증한 결과, 원가족 자아분화는 정서지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4$, $p<.05$). 즉, 원가족 자아분화의 정(+)적 영향이 클수록 정서지능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하루에 10분정도'($\beta=0.67$, $p<.001$), '하루에 30분정도'($\beta=0.81$, $p<.001$), '하루에 1시간이상'($\beta=1.00$, $p<.001$),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beta=-0.26$, $p<.05$)가 정서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정서지능의 낮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서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화의 시간을 갖을수록 정서지능의 높은 범주 쪽에 속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분화가 종속변수인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0$, $p<.01$). 즉, 원가족 자아분화의 정(+)적 영향이 클수록 학교행복감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독립변수 원가족 자아분화가 종속변수 학교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하루에 10분정도'($\beta=0.50$, $p<.001$), '하루에 30분정도'($\beta=0.65$, $p<.001$), '하루에 1시간이상'($\beta=0.84$, $p<.001$),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beta=-0.38$, $p<.001$)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 보면,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beta=-0.38$, $p<.001$)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학교행복감의 낮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부모님과 하루 평균 대화시간'에서는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대화의 시간을 갖을수록 학교행복감의 높은 범주 쪽에 포함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원가족 자아분화와 매개변수인 정서지능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beta=0.17$, $p<.05$)와 정서지능($\beta=0.52$, $p<.001$)의 범주 모두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의 정(+)적 영향이 클수록 학

교행복감 범주의 긍정적인 쪽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3단계의 원가족 자아분화($\beta=0.17, p<.05$)가 1단계에서의 원가족 자아분화($\beta=0.24, p<.05$)에 비해 β 값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유의한 수준으로 남아 있으므로 부분매개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3단계에서 원가족 자아분화($\beta=0.17, p<.05$)와 정서지능($\beta=0.52, p<.001$)이 학교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2 단계에서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자아분화의 값이 0.30에서 3단계에서는 0.1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학교 행복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이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추가적으로 Sobel[33]이 제안한 방식으로 매개효과를 보다 엄격히 검정한 결과, Z 값은 6.02로 $|Z|>1.96$ 에 해당하므로, $p<.001$ 수준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와 모형은 Fig.2와 같다.

Table 5.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N=116)

Step	Variables		<i>B</i>	β	<i>t/p</i>	<i>R</i> ² (<i>Adj.</i>)	
Step1	intercept		1.95	0.00	7.14	0.54 (0.51)	<i>F</i> = 15.71 on 8 and 107 <i>DF</i> , <i>P</i> = .000
	Average conversa- 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1.15	0.67	5.13***		
		About 30 minutes a day	1.03	0.81	4.09***		
		More than 1 hour a day	1.15	1.00	4.46***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01	0.01	0.08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38	-0.26	-2.46*		
	Counseli- ng Center	K-Center	-0.06	-0.05	-0.72		
		W-Center	0.04	0.03	0.38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Emotional Intelligence		0.17	0.24	2.25*			
Step2	intercept		1.73	0.00	6.82***	0.64 (0.61)	<i>F</i> = 23.51 on 8 and 107 <i>DF</i> , <i>P</i> = .000
	Average conversa- 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0.90	0.50	4.34***		
		About 30 minutes a day	0.86	0.65	3.67***		

Step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More than 1 hour a day	1.01	0.84	4.23***	0.76 (0.74)	$F=$ 37.32 on 9 and 106 DF, $P=$.000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11	-0.09	-1.09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58	-0.38	-4.05***		
	Counseling Center	K-Center	0.02	0.01	0.22		
		W-Center	0.21	0.13	1.88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School happiness		0.23	0.30	3.12**		
	intercept		0.68	0.00	2.68***		
	Average conversation time with parents	About 10 minutes a day	0.28	0.16	1.48		
		About 30 minutes a day	0.30	0.23	1.47		
		More than 1 hour a day	0.39	0.32	1.83		
	Thinking about quitting school	I thought about it once or twice	-0.12	-0.09	-1.39		
		I thought about it multiple times.	-0.37	-0.25	-3.11**		
	Counseling Center	K-Center	0.05	0.04	0.78		
		W-Center	0.18	0.11	2.03*		
	Family-of-Origin Self-Differentiation → School happiness		0.13	0.17	2.17*		
	Emotional Intelligence → School happiness		0.54	0.52	7.36***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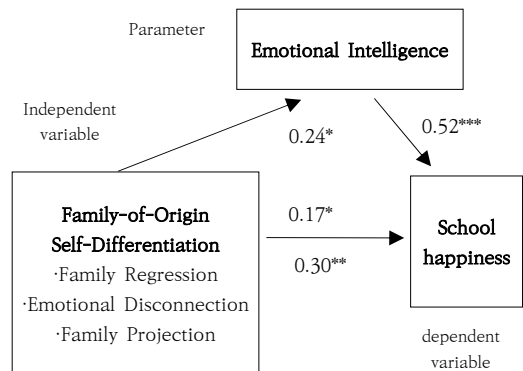


Fig. 2. Mediating effect model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정서지능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변인들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긍정적으로 유의미함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34]와 의미적으로 일치하였다. 기혼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인의 초기 성장기의 자아분화가 이후 성인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35]는 본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족구성원 간의 분화수준이 청소년의 적응력을 결정 짓는다는 결과[36]와 초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해 자아분화가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여 준 선행연구[37]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중학생의 심리적 성장환경과 학교생활적응이 학교행복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38] 역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는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에는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 가족투사 순으로 학교행복감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족퇴행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9]와 의미를 같이 한다. 대학생의 자아분화 하위요인들이 대인관계와 정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40]가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생 자녀의 자아분화 하위요인인 가족투사는 가족융합과 상호작용을 하며[41] 기혼자의 자아분화수준이 높으면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다[42]고 설명되고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주장을 따른다. 이러한 의미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 하위요인인 가족퇴행, 가족투사는 학교행복감에 긍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행복감 향상을 위해 원가족 자아분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자아분화수준에 따라 학교환경 만족 및 학습활동 즐거움 방안을 마련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가족 자아분화의 정도는 세대 내와 세대 간의 정서적 연계 및 사회적 관계의 축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높은 가족자아분화는 가족퇴행 및 투사와 역기능적 관계를 갖으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11, 16]. 낮은 원가족 자아분화는 가족체계의 불안과 투사, 퇴행 등을 답습하게 되는 주요 변인이 된다. 따라서 원가족 자아분화의 하위변인 중 가족퇴행과 가족투사의 처치 및 중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건강성 향상과 학교부적응 청소년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독립적이고 유연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실현시켜나갈 수 있는 자아분화를 촉진하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3단계 매개효과 검정과 Sobel 검정 결과, 원가족 자아분화가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와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학교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자아분화 수준이 높아질 때 정서지능이 높아진다는 Kim과 Kim[43]의 연구, 정서지능은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44],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학교생활을 더 잘한다[45]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Kim[46]은 정서지능이 높은 청소년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Shim[47]은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성이나 대인관계기술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4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행복감을 향상시키고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부적응 청소년 및 보호자의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대화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의 참여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도와 조절능력을 높여 정서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교사나 또래관계 등의 학교 환경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정서지능을 높이고 학교행복감을 증진시키므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적극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원가족 자아분화가 긍정적인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및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의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U시의 학교부적응 청소년들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행복감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초·중·고의 발달단계별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적응,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결손, 다문화, 탈북가정 등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원가족 자아분화 경험과 행복감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1] C. K. Yoon, H. S. Cho, H. C. Kim, K. M. Lee, J. J. Woo, Current Situ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Community Safety Net of Crisis Youths, Research report,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pp.1-513.
- [2] H. Y. Kwon, H. M. Kim, "Psychosocial Factors of At-risk Youth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26, pp.209-240, Jun. 2011.
- [3] D. H. Kim, "A Study on the Longitudinal Trajectories and Predictors of Truant Youth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71, No.2, pp.175-194, 2019.
DOI : <http://dx.doi.org/10.20970/kasw.2019.71.2.007>
- [4] D. H. Kim, *The Meditation Counseling Experience of Adolesc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A Narrative Study*, Ph.D dissertation,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2016.
- [5] E. J. Lee,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 to parental attachment and adolescent school maladaptation problem research*, Master's thesis,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Keimyung University, 2011.
- [6] H. Y. Kim, H. Y. Tak, "The Effect of Personal Variables, Family Variables and School Variables on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7, No.7, pp.23-45, 2020.
DOI : <http://dx.doi.org/10.21509/KJYS.2020.07.27.7.23>
- [7] J. B. Kim, T. E. Kim,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1, pp.259-279, 2008.
- [8] C. Wu, D. H. Ahn,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Positive Academic Emotion, Happiness, and School Engagement :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4, no.4, pp.493-516, 2018.
DOI : <http://dx.doi.org/10.24159/joec.2018.24.4.493>
- [9] H. S. Cho, B. K. Jung,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and Peer Relationship on Their School Happiness and the Utrecht Work Engagement Scale-Student(UWES-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25, No.3, pp.915-930, Jun. 2016.
- [10] T. F. He,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subjective sense of well-being and human relationships", *Datong in Shanxi University : Natural Science*, Vol.29, No.4, pp.76-79, 2013.
- [11] J. H. Park, Y. J. Cho, "Romantic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44, No.7, pp.113-124, 2006.
- [12] E. H.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1963.
- [13] H. J. Moon, "Effects of Adolesc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their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2, pp. 495-502, 2020.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20.21.2.495>
- [14] J. N. Kim,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and College Life Adjustment: The Role of Social Skills*, Master's thesis, Kyungnam Graduate School, Korea, 2008.
- [15] Y. W. Yang, J. R. Joeng, "The Effects of Mother's Self-differentiation on the Child's Friendship Quality through Child's Self-differentiation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5, No.3, pp.361-378, 2018.
DOI : <http://dx.doi.org/10.16983/kjsp.2018.15.3.361>
- [16] O. H. Choi,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and Communication of Parents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ubjective Happiness-Focusing on Joseonjok People in Yanji, China*,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5.
- [17] Y. H. Kang,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Strengthening Program on Emotional Ability and Peer Relationship of Prim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2008.
- [18] S. J. Lim, J.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Adolescents: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Vol.65, No.1, pp.173-194, 2017.
DOI : <http://dx.doi.org/10.25152/ser.2017.65.1.173>
- [19] Y. K. Kim, "Development of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through Reframing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Vol.17, pp.35-59, 2009.
- [20] E. A. Park,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Immersion on the Role Performance of Children's Class in Daycare Cent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Gachon University, 2021.
- [21] J. M. Kim, Y. R. Lee,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Parentification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8, No.3, pp.13-26, 2010.
- [22] E. S. Lee, K. N. Le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Happiness among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Teach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Vol.11, No.2, pp.221-238, 2015.
DOI : <http://dx.doi.org/10.14698/jkce.2015.11.2.221>
- [23] S. W. Kim, S. Y. Chun,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of School-Maladjusted Children", *Arts and Human*, Vol. 2, No.2, pp.1~24, 2016.
- [24] S. Li,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Teachers'Autonomy Support and Peer Relatedness Support, Grit, School Happiness and Classroom Engagement of Korean and Chines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20.
- [25] M. Bowen,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Vol.4, No.1, pp.2-90, 1976.
- [26] S. B. J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dysfunctional behavior*,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9.
- [27] J. H.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ifferentiation of Original Family Members, Marital Conflict, Marital Intimacy and Caregiving Parents Stress for Female Spouse*, Ph.D dissertation, Daej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20.
- [28] M. H. J. Bekker, "The role of autonomy-connectedness in depression and anxiety", Vol.23, No.5, pp.274-280, 2006.
DOI : <http://dx.doi.org/10.1002/da.20178>
- [29] C. Wong, K. S. Law, "The construct and criterion validity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ts potential utility for management stu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89, No.3, pp.483, 2004.
DOI : <http://dx.doi.org/10.1037/0021-9010.89.3.483>
- [30] J. H. Han, T. Y. Yoo, "The Effects of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on Subordinate's Attitude and Leader's Task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8, No.1, pp.177-199, Apr. 2005.
- [31] H. I. Jang, *The Effect of Teachers'Emotional Labor on Burnout: Mediated Effects of Emotional Dissonance and Satisfaction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Ph.D dissertation,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2020.
- [32]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5th ed.), pp.3-42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 [33] D. P. Mackinnon, C. M. Lockwood, J. M. Hoffman, S. G. West, V. Sheets, "A Comparison of Methods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ed Effect", *Psychological Methods*, Vol.7, No.1, pp.83-104, 2002.
DOI : <https://doi.org/10.1037/1082-989X.7.1.83>
- [34] H. J. Bae,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cohesion, self-differentiation and happiness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2004.
- [35] K. H. Park,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Home Life and Job according to the Self-Differentiation Level of Married Workers", *Journal of Announcement of Academic Presentation Conference of the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pp.109-130, Apr. 2010.
- [36] M. S. Jeung,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Single Parent and Both Parents Families", *Forum For Youth Culture*, Vol.26, pp.191-228, 2011.
- [37] K. H. Koo, S. W. Kim, "Effects of Family Strength on Subjective Well-Being Perceived by Elementary Students : Mediating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6, pp.281-307, 2014.
- [38] S. Y. Kim, K. P. Cho, "The Effect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Psychological Growth Environment, and Social Support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School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6, No.2, pp.259-279, 2016.
- [39] Y. J.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i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ens University, 2011.

- [40] S. J. Lee, *The relationship of self-differenti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2012.
- [41] M. J. Jung, H. J. Jung, S. H. Lee, Y. J. Jeon, Understanding of family therapy, Seoul ; Hakchisa, 2018.
- [42] S. Y. Park, *Effects of Self Differentiation Level and Perspective Taking Ability on Marriage Satisfaction and Happines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aejeon University, 2019.
- [43] H. S. Kim, W. I.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Air Force Soldie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6, No.12, pp.377-399, Dec. 2019.
DOI : <http://dx.doi.org/10.21509/KJYS.2019.12.26.12.377>
- [44] H. I. Jo, M. H. Lee, "The Mediating Effect of Prosocial Behavior in the Relation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No.11, pp.139-158, Nov. 2010.
- [45] K. S. Kim, S. H. Le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 Program on th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nd Peer Relationship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20, No.1, pp.171-191. Jul. 2009.
DOI : <http://dx.doi.org/10.20972/kiee.20.1.200907.171>
- [46] H. J.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lligence on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2007.
- [47] Y. H. Shim, *Communication with parents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Emotional Intellig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he University of Suwon, 2018.
- [48] S. 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image and subjective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University, 2008.

송 경 미(Kyeng-my Song)

[정회원]



- 2017년 3월 ~ 현재 : 큰사랑드림 콘텐츠연구소 연구원
- 2018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석·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 융합콘텐츠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 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데이터베이스, 문화콘텐츠, 교육